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혜연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6.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전해연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조선실학자 정약용 선생에 대한 명칭을 정비하여 남양주시의 바른 문화유산 확산과 관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 조례」

나. 명칭 변경

정약용문화제 → 다산정약용문화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라. 입법예고 : 2024. 5. 31. ~ 2024. 6. 6. (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기념인물인 정약용선생의 실사구시와 인문정신을 계승하고자 문화제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정약용문화제’에서 ‘다산정약용문화제’로 변경함에 따라 각 조문에 명기된 문화제 명칭을 다산정약용문화제로 수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문화제의 명칭의 연혁을 살펴보면 1986년부터 다산문화제로 계속 사용해 오다가 2019년도 3월에 정약용 도시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정약용문화제로 변경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 선생의 호와 성명을 혼용하여 문화제 명칭을 새롭게 개정하는 만큼, 선생의 후손과 다수 시민의 의견처럼 향후 명칭에 대한 변경 없이 지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1 정약용 후손 의견 내용

- 정약용 후손 중 가장 대표성이 있는 정호영의견
- 현 정약용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 현 정약용 7대 종손

- ‘다산’ : 다산문화제(1986년 ~2018년)로 개최된 전통을 존중
- ‘정약용’ :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에게는 한자어와 ‘호’가 익숙지 않을 수 있어 정약용이라는 성명 병기 필요

결론: ‘다산정약용문화제’로 변경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이번에 변경된 이후로는 변경없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2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

의견수렴 개요

1. 다양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설문방법: 온라인 투표 및 의견 청취
※한국실학학회, 다산학술문화재단, 다산연구소, 실시학사 등 유관기관 협조
- 내용: 정약용 문화제 명칭 의견 조사
①다산문화제 ②정약용문화제 ③다산정약용문화제 ④기타의견
- 기간: 2023. 5. 15. ~ 5. 26.(12일간)
- 조사기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 남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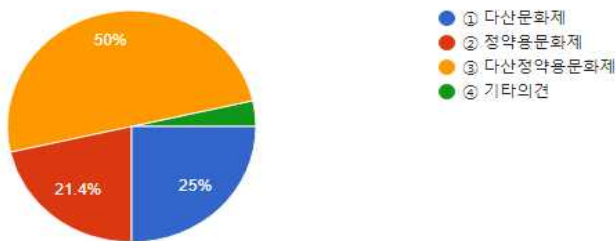
2. 남양주시 다산학 추진 석학 좌담회 개최

- 일시·장소: 2023. 6. 26.(월) 16:00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504호
- 내용: 남양주 세계다산학의 사업방향 자문, 문화제 명칭 의견 토의
- 좌담참석자: 6명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경호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원장,
김문식 한국실학학회 회장, 김문용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안대회 성균관대 문과대학 학장, 이영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원장

■ 의견수렴 결과

1. 전문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대상 인원: 180명(전국 전문 실학 연구자)
- 결과 요약
- **응답율: 31%(56명) ⇒ 성균관대 연구 인력풀 활용(메일 등 발송·회신)**
- 온라인 응답자의 50%(28명) ⇒ ‘**다산정약용문화제**’



- 기타 의견

- ‘열수문화제’ 제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별호이자, 한강을 의미하는 ‘열수’를 제목으로 사용. 이미 정약용문화제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을 계승하는 것과 다양한 문화활동 및 체험을 담고 있는 만큼, 폭넓은 ‘열수’를 활용하는 것은 중의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문화제의 성격을 대변할 수 있을 것

- 기타 명칭별 의견

- 다산문화제: 다른 의미가 있으므로 혼돈의 여지가 있음
- 다산정약용문화제: 정확하긴 하지만 이름이 좀 길다는 느낌 존재
- 정약용문화제: ‘정약용’이라는 이름은 세계적인 지명도가 있기에 대표성도 확보되고 간략하고 명징한 이미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 내용

기간 및 방법		(합계)	정약용문화제, 정약용유적지	다산문화제, 다산유적지	다산정약용문화제, 다산정약용유적지	기타
(계)		56명	12명	14명	28명	2명
온라인 조사	23.5.15.~5.26.	비중	21.4%	25%	50%	3.6%

2. 석학 좌담회 의견수렴 결과

⇒ ‘다산정약용문화제’ 최종 의견수렴

‘다산정약용 문화제’ 선호	김문식 한국실학학회 회장 연구자 관점에서 ‘다산문화제’, ‘다산정약용문화제’의 의미는 동일하나, 최근 들어 박물관 등에서 이름을 쓰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고 MZ세대들은 이름을 편하게 느끼고 있어, 중간적 의미로 ‘다산정약용문화제’로 하면 좋겠다. 다만 문화제 명칭이 정해지면 앞으로 명칭의 변경 없이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안대회 성균관대 문과대학 학장 예전과 지금은 사람들의 한문의 이해도가 다르며, 역사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세대별로 다르다. 한문을 모르는 신세대를 고려할 때 ‘다산정약용문화제’가 중간적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의미적으로 잘 다가가기에 좋다고 생각한다.
‘다산문화제’ 선호	이영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원장 ‘다산정약용문화제’로 하면 다산과 정약용이 다 포함되기에 안정적으로 문화제 명칭을 지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다산문화제’를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다산하면 정약용 선생을 떠올리며 강진에 있는 산(茶山)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는다고 본다.
기타(중립) 의견	김문용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문화제 명칭 선정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산정약용문화제’ 명칭은 길어서 발음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다산(茶山)은 강진군을 강조하는 면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진에는 다산 정약용 관련 문화제(행사)가 현재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남양주시에서 명칭으로 강진군과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좌담회 개최 사진



석학 좌담회 구성표[프로필]

성명	사진	소속	주요경력(前)
김경호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원장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방문학자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
김문식		한국실학학회 회장 단국대 사학과 교수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자문위원
김문용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한국실학학회 연구위원장 -고려대학교 철학과 박사
송재소		재단법인 실시학사 원장 성균관대 명예교수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한국한문학회 회장
안대회		성균관대 문과대학 학장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원장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원장
이영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원장 한국고전번역학회 회장 한국경학학회 회장	-한국경학학회 부회장

참고자료 3 시민 의견수렴 내용

의견수렴 개요

- 설문 방법: 오프라인(정약용유적지) 및 온라인(내손에 남양주 등)
- 주요 내용: 정약용문화제 및 유적지 명칭 선호도 조사
 - ① 정약용문화제, 정약용유적지 ② 다산문화제, 다산유적지 ③ 다산 정약용문화제, 다산 정약용유적지
- 기 간: 2022. 9. 23.(금) ~ 11. 21.(월)

의견수렴 결과

- 참여 인원: **6,561명** (오프라인 : 2,523명/ 온라인: 4,038명)
- 결과 요약
 - **응답자 61.1%** (오프라인 56.2%, 온라인 64.3%) ⇒ **호와 성명 함께 사용하는 명칭 선호**
 - 온라인 응답자 50.9%(2,054명) ⇒ 정약용문화제로 명칭 변경된 사실 모름.
 - 다산과 정약용이 **함께** 알려지면 좋겠다는 기타 의견이 많이 보임.
- 세부 내용

기간 및 방법		(합계)	정약용문화제, 정약용유적지	다산문화제, 다산유적지	다산 정약용문화제 다산 정약용유적지	기 타
(계)		6561명	1,193명 (18.2%)	1,318명 (20.1%)	4,012명 (61.1%)	38
오프라인	22.9.23.~9.24. (문화제 관람객)	781	184	224	373	-
	22.9.27.~11.21. (유적지 방문객)	1,742	379	319	1,044	-
온라인	22.11.8. ~11.21. (내손에 남양주 등)	4,038	630	775	2,595	38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제명 변경 및 문화제 명칭 변경 등 재정수반 요인이 없는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안임

※제명 변경

-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문화제 조례」

※명칭 변경

- 정약용문화제 → **다산**정약용문화제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매년 세출, 세입 예산에 대한 현저하게 추가되는 예산 증감사항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강호진